



Center for Future Warfare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 연구센터 워킹페이퍼 No. 59 (발간일: 2020.12.11.)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필요와 방향

유현기 육군본부

〈차 례〉

- I. 서론
- II. 팬데믹에 대한 이해
- III. 코로나19가 군에 가져온 도전요인
- IV.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방향
- V. 결론

I. 서론

“팬데믹(pandemic)은 인수공통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시작됐다. 박쥐에서 돼지를 거쳐 사람에게 왔다. 증상은 가볍지만 전파 속도는 훨씬 빠르다. 1년 안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포에 휩싸인 세계 경제는 위축된다. 세계 총생산(GDP)이 11%가 감소한다. 가짜정보가 난무해 감염병 퇴치에 애를 먹는다. 18개월이 지나 수천만 명이 희생되고서야 사태는 종료된다.”

이 시나리오는 2019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Johns Hopkins

¹⁾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비롯한 척추동물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이다.



Center for Health Security)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공동 주최로 열린, 인류를 위협할 중대한 현안이 벌어질 경우를 가정한 도상훈련 '이벤트 201'에서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가상 상황이다.²⁾ 놀랍게도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양상을 보는 듯하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2020년은 전 세계가 전에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던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사망자 수는 80만 명을 넘어섰고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이 일상이 된 바이러스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되었다. 20세기의 세계화는 번영과 동시에 위기를 가져왔다. 발전하는 기술로 세계가 연결되면서 한 지역의 위기는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군(軍)은 처음 겪는 변화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우리 군은 전통적인 군사위협에 초점을 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왔다. 육·해·공, 사이버 공간에서 재래식 무기 위주의 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다른 군사강대국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전통적 군사강대국들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누구도 팬데믹에 대비가 되어있지 않음이 증명되었다.³⁾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그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는 지정학, 무역·통상을 넘어 당분간 보건위생 체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리더십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패권 경쟁은 힘의 대결보다는 거버넌스의 리더십 경쟁, 즉 '어떤 리더가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안보에 대한 접근법은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전통적 안보만큼 전염병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도 관심을 둘 것이다. 따라서 팬데믹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화생방(화학, 생물학, 방사능)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해온 것과 같이 군 단독적인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민·관·군이 평시부터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대비가 가능하다. 군은 전염병, 재해재난, 환경오염 등 신생안보위협(new emerging threats)과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더 많은 역량을 쏟을 것이고,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팬데믹은 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답을 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 팬데믹의 개념과 사례, 확산 원인과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팬데믹을 이해하고 국가안보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 본다. 제3장에서는 코

²⁾ "The Event 201 exercise", A Global Pandemic Exercise, [https://www.centerforhealthsecurity.org/event201/about\(2020.6.24.\)](https://www.centerforhealthsecurity.org/event201/about(2020.6.24.))

³⁾ 2020년 9월 9일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사망한 893,313명 중 미국이 189,2269명(1위), 영국이 41,643명(5위), 프랑스가 30,732명(7위)를 차지했다. (출처: 존스홉킨스대학교)



나19 사태로 인해 외국군이 겪은 피해와 대응사례, 그 과정에서 한국군에 적용 가능한 교훈을 찾아보고, 한국군의 피해와 대응사례를 한국군 자체적 대응과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방향을 ‘군 자체적 대비가 가능한 분야’와 ‘기관 간 협력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다.

II. 팬데믹에 대한 이해

1. 개념과 사례

우리나라에서 팬데믹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여러 대륙이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상당한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다만 감기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인정한 광범하게 발병하는 질환(풍토병, endemic)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현재까지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10개의 팬데믹이다.⁴⁾

가. 안토니누스(Antonine) 시대의 전염병(AD165년): ‘갈렌(Galen⁵⁾) 역병’이라고도 알려진 이 전염병은 아시아 마이너⁶⁾,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에 영향을 준 고대 전염병이었다.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천연두나 홍역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5년경 로마로 들어와 5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나.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 시대의 페스트(541-542): 유럽 인구의 약 절반을 죽게 한 ‘최초의 흑사병’으로 기록되며 비잔틴 제국과 지중해 항구 도시에서 창궐하여 1년 동안 약 2천5백만 명이 사망하였다.

다. 흑사병(1346-1353): 페스트로도 불리며 1346년부터 1353년까지 발생하여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초토화했고, 약 7천5백에서 2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상선에 있던 쥐에 기생한 벼룩을 통해 대륙을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제3차 콜레라(1852-1860): 일반적으로 말하는 7번의 콜레라 대유행 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례이다. 인도에서 발원해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로 전파되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망케 했다.

4) 제효영, 『대유행병의 시대 :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 커넥팅, 2020.

5) 흔히 갈렌(Galen)으로 알려져 있는 아엘리우스 갈레누스(Aelius Galenus) 또는 클라우디우스 갈레누스(Claudius Galenus)는 로마 제국의 의사, 외과 의사, 철학자였다.

6) 아시아 마이너의 공식명칭은 아나톨리아(Anatolia)로 서아시아의 큰 반도이다. 아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에 돌출되어 있고 오늘날 터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 독감(1889-1890): '아시아 독감' 또는 '러시아 독감'이라고 불렸으며 중앙아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등 세 곳의 동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도시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어 2년간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바. 제6차 콜레라(1910-1911):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후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로 전파되었다.

사. 독감(1918): 1918년과 192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발병하여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감염시키고 약 2천만~5천만 명이 사망했다. 감염된 5억 명 중 사망률은 10%~20%에 달했으며, 처음 25주 동안만 약 2,500만 명이 사망했다.

아. 아시아 독감(1956-1958): 1956년 중국에서 발원해 1958년까지 계속되면서 중국에서 싱가포르, 홍콩, 미국으로 퍼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망자를 약 200만 명으로 집계했고 이 중 미국에서만 6만 9,800명이 사망했다.

자. 독감(1968): '홍콩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홍콩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3개월 만에 필리핀, 인도, 호주, 유럽, 미국까지 퍼졌다. 비교적 낮은 사망률(0.5%)을 기록했지만, 홍콩에서는 인구의 약 15%인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차. 에이즈(1976-현재):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HIV/AIDS는 1981년 이후 3,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한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 약 3천 8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었고, 이 중 성인이 약 3,620만 명, 아동(15세 미만)이 약 180만 명이었다.

2. 확산의 원인과 영향

가. 원인

전염병의 확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4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계화'의 확산이다.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항공편은 바 이러스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되었다. 전 세계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2018년 기준 연간 43억 명에 이르고 세계 어디든 이틀이면 이동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2개월여 만에 10만 명에 이르고 100개 국가에서 발생한 이유이다. 표1에서 보듯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라 2~5년 간격으로 월경성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표 1〉 율령성 감염병 비교⁷⁾

항목 \ 종류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신증플루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감염국(개국)	32	129	4	24
창궐시기(년)	2002-2003	2009	2014-15	2012-15
확진자(명)	8,273	25,584,595	8,396	1,154
사망자(명)	775	14,378	4,032	471
치사율(%)	9.3	0.056	48	40.8

둘째는 ‘도시화’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바이러스 확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모여 산다. UN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 비율이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⁸⁾ 한국의 상황도 비슷한데, 서울은 이미 약 2,56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메가시티⁹⁾이고 지방의 각 대도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환경 파괴’이다.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 공간은 줄어드는 반면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즉, 자연에 머물던 바이러스가 인간과 더욱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에볼라(Ebola virus), 지카(Zika/Flavi virus),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와 같은 감염병 발생의 31%가 이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¹⁰⁾

넷째는 ‘기후변화’이다. 지구 온난화로 지카, 말라리아(Malaria), 뎅기열(Dengue fever) 등을 옮기는 모기의 서식지가 확산되고 있다.¹¹⁾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와 습도의 상승으로 곤충이나 쥐 등 설치류의 서식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나. 영향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며 그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비전통적 안보와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코로나19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분쟁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더욱 취약해진다. 분쟁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 즉 전쟁 중이

7) 이상환, “감염병의 국제관계: 21세기 국제사회의 보건 갈등과 협력, JPI정책 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20.2, p.6,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옮김.

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68% of the world population projected to live in urban areas by 2050, says UN”,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population\(2020.6.24.\)](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population(2020.6.24.))

9) 메가시티(Mega city)란 일반적으로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 매우 큰 도시를 말한다.

10) WHO, “Factors that contributed to undetected spread of the Ebola virus and impeded rapid containment”, <https://www.who.int/csr/disease/ebola/one-year-report/factors/en/> (2020.6.25.)

11) Canada Communicable Disease Report,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The challenges, “Could exotic mosquito-borne diseases emerge in Canada with climate change?”,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587696/\(2020.6.24.\)](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587696/(2020.6.24.))



거나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의 발생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나 장기간의 불안은 국가의 경영능력을 악화시키고 부패 등의 요인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보건 시스템이 전염병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확률이 높다.

둘째, 국제 위기관리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악화된다. 난민 인구가 특히 전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국제기구의 원조능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공급망이 제한받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전염병의 대유행은 국제사회의 평화 조성 노력을 악화시킨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자국 내 위기관리에 대응하느라 국제적 갈등이나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게 된다.¹²⁾

셋째,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이 증가한다. 코로나19는 사회와 정치 체제에 악영향을 주고 새로운 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공중보건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며 보건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불만,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긴장이 조성된다. 이는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보건안보 위기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질병 통제조치를 정치적 반대파나 시위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질서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는 미국은 국내에서도 미흡한 전염병 대처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최초 코로나19의 발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인 협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대처는 강한 지정학적 색채를 띠고 있다.

III. 코로나19가 군에 가져온 도전요인

1. 외국군의 피해 및 대응사례, 시사점

가. 미국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다. 2020년 8월 말, 전 세계 81만 명의 사망자 중 미국의 사망자가 약 18만 명으로 부동의 1위였다. 미군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같은 기간 미군 7명을 포함하여 군인가족, 군무원 등 총 88명이 미군 내에서 사망했다.¹³⁾

¹²⁾ 강희진,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 인류를 위협한 전염병과 최고 권력자들의 질병에 대한 기록』, 미래의창, 2020.

¹³⁾ DOD COVID-19 Cumulative Totals, Coronavirus: DOD Response,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www.defense.gov/explore/spotlight/coronavirus/>



2020년 4월 미 해군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4,800명의 승조원 중 1천 1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다. 루즈벨트호의 철수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고 인민해방군 웹사이트에는 “코로나19 발병으로 미 해군의 아태지역 군함 배치 능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¹⁴⁾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자주 충돌해온 남중국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군의 일시적인 철수는 중국에게 좋은 전략적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미군의 의료물자 공급망의 약점을 드러냈다. 미국이 중국산 의약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미군과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미국 정부가 국내의 의약품 부족을 보고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마크 밀리(Mark Milley) 합참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미군에서 쓰이는 약품의 상당량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미군에게 중대한 취약점이다.”라고 말하였다.¹⁵⁾ 만약 중국이 해당 의약품의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군으로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 연방정부는 감염 발생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미군을 활용하였다. 미 육군 공병대는 연방재난관리청과의 협조를 통해 호텔, 대학 기숙사 등 대형 건물을 임시 병원으로 전환하였다. 시설 일부는 코로나19 중환자실 기능을 갖추고, 다른 시설들은 일반환자들을 수용하여 기존병원들이 팬데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 해군은 두 척의 병원선을 피해 지역에 배치하여 일반환자들을 수용하고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한편 미 국방부는 2020년 1월 29일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군의 모든 활동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8월 21일까지 총 96회의 공지를 하였으며 미 국방부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¹⁶⁾

미군이 겪은 사례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개인 방역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한다. 루즈벨트호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 방역의 성패가 부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미군의 최대 전력 중 하나인 항공모함을 철수시킨 것이 물리적 힘이 아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였다. 한국군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므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감염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염병의 대규모 발생 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긴급 의약품의 경우 독점이 아닌 복수의 공급업체를 확보해야 하며, 팬데믹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¹⁴⁾ Brad Lendon, CNN, “Coronavirus may be giving Beijing an opening in the South China Sea”, <https://edition.cnn.com/2020/04/07/asia/coronavirus-china-us-military-south-china-sea-intl-hnk/index.html> (2020.6.24.)

¹⁵⁾ Li Bao, Voice of America, “Coronavirus Reveals Weakness in US Military Supply Chain, Officials Say”, [https://www.voanews.com/science-health/coronavirus-outbreak/coronavirus-reveals-weakness-us-military-supply-chain-officials\(2020.8.21.\)](https://www.voanews.com/science-health/coronavirus-outbreak/coronavirus-reveals-weakness-us-military-supply-chain-officials(2020.8.21.))

¹⁶⁾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RESPONSE TIMELINE”, <https://www.defense.gov/Explore/Spotlight/Coronavirus/DOD-Response-Timeline/> (2020.8.24.)



간주하고 공급업체에 긴급 대량생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무 우선순위 판단과 적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미군은 감염 피해 이후 즉시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방역을 통한 전투력 보존에 집중하였다. 외부의 적에 대한 대비와 국가적 방역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판단이 중요하다.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군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행작전을 게을리할 수 없다. 동시적 임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군은 평시에 대량 전시물자 및 시설을 보유하고 위기관리를 훈련하므로 팬데믹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군 의료 인력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 의료진보다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인력이다. 보유하고 있는 군 자산 뿐 아니라 가용한 민간시설의 전환사용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에서 팬데믹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군의 활동사항에 대한 투명한 대국민 공개와 소통이 중요하다. 오늘 날 전쟁은 물리적 힘으로만 이길 수 없고 언론, 여론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공보는 필수적이다. 투명하게 대응 활동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 군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다.

여섯째, 민·관·군 통합대비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주 정부는 비상사태 초기대응의 책임을 지지만 능력을 초과하면 주 방위군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군이 대구 등 일부 피해 지역에 투입되었지만, 지자체의 요청을 받고 지원했다기보다는 군이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가용한 자원을 투입하였다.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평시부터 민·관·군 통합 협조체계가 구축된 가운데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 중국

중국 인민해방군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우한지역 격리 조치 이후에도 중국군은 전염병 대응에 아주 제한적으로 동원되었다. 의료부대도 바이러스가 퍼지고 한 달 후인 1월 24일에야 우한에 도착하였다. 그 후 의료지원물자 공급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임무로 인해 중국군의 대규모 배치는 제한되었다. 군수부대는 우한에 물자 저장시설을 두고 있음에도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한 달 가까이 소비하였다.

도시의 비상대응시스템도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인민해방군은 매년 주요 도시에서 경찰, 민병대, 민간단체와 모의훈련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들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편 전염병은 인민해방군 모집에 문제를 초래하였고 일부 무기의 생산을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의 군사 현대화 계획을 지연시켰다. 인민해방군은 올해의 장병 모집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연 2회의 전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군 모집체계의 변경은 장기적인 군사력 증강에 영향



을 줄 것이다. 항공모함을 건조 중인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전염병 발생 이후 다른 도시를 여행한 직원들을 격리됨에 따라 항모의 제작이 지연되었다. 우한에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우창선박중공업과 해군공과대학, 하이테크 기업 등 많은 연구개발시설이 있다. 이들의 생산 중단은 중국군의 현대화 계획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중국의 영해와 해외 영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다. 방산업체의 폐쇄는 일시적이지만 영해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지연시키고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해상 실크로드 확보에 제한을 줄 수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제적 손실은 중국 지도부가 군 증강보다는 고용과 국내 경제를 촉진하는 데 더 관심을 두게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의 둔화로 이어져 '차이나 드림(中國夢, Chinese Dream)' 실현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문부대가 있어야 한다. 군은 유사시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되어 훈련한 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인민해방군이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보여준 모습은 부족한 면이 많았다. 한국군도 보건 위협에 최적화된 부대를 창설하거나 기존 부대를 보강함으로써 대응 전문부대를 보유해야 한다. 새로운 임무와 상황에 적합한 인력, 장비, 물자를 편성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안정적인 군수물자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는 군 인력 운영과 군수물자 공급망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군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항시 현행작전을 수행하며 전쟁을 대비한다. 따라서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군수물자의 공급은 필수적이며 경제적 타격이 군수품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방예산 감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 세계는 다가올 경제적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방비를 비롯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분야의 예산을 줄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에 대해 대처가 필요하다. 국가위기 극복에 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내어주기보다는 군의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며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국가방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다. 유럽

1) 영국 : 2020년 9월 초까지 영국의 사망자는 41,643명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였다. 4월에 브루나이에 있는 영국군 기지에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후속 조치로



다른 기지들을 봉쇄하고 작전을 조정하였다. 이후 영국군은 2만 명 규모의 지원부대를 투입하여 물자 제공과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전문기술을 갖춘 3,000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였고 150여 명의 군 차량 운전인력과 900여 명의 의료 지원인력을 확보하였다. 런던의 민간병원들은 군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었고, 민간시설을 전환하여 야전병원을 만들었다. 영국 전역에 이동식 진료소를 설치하여 70만 건 이상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개인 보호장비를 분배하였으며 3D 프린터 소유 주들과 함께 의료진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에 발이 묶인 영국인 휴가객들을 귀환시키고 포클랜드섬에 군 의료진을 파견하여 지역 병원을 보강하였다.¹⁷⁾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영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을 2.5%에서 2.1%로 줄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방예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국의 연구기관인 GlobalData에 따르면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이 감축될 것인데 그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국방비 예상치의 17%인 1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이러한 예산 감축은 국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영국의 안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¹⁹⁾는 2019년에만 600건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냈다.²⁰⁾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도 적들은 영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사회 안정을 해치려 할 것이다. 국방비의 감소로 인해 사이버 보안과 같은 비교적 전통적 안보요소는 팬데믹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국립사이버안보센터와 같은 조직들의 대응 능력은 약화될 것이고 결국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편, 국방비의 감축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역의 군사작전에 영국군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국방예산이 감소하면 해외파병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재평가가 뒤따른다. 만약 철군으로 이어진다면 영국은 세계무대에서 자신들의 줄어든 위치를 알릴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의 출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팬데믹으로 시작된 위기가 단기적으로 보건안보 위협과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적들의 출현으로 이어짐으로써 국가안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2) 프랑스 : 프랑스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임무를 조정하였다. 환자 이송을 위해 치료 장비를 갖춘 군 항공기를 투입하고 해군은 69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할 수

¹⁷⁾ Florian Opillard, Angélique Palle, Léa Michelis, "Discourse and Strategic Use of the Military in France and Europe in the COVID-19 Crisis", 2020.7, p.250.

¹⁸⁾ UK Defence Journal, "COVID-19's economic damage is a problem for British security", <https://ukdefencejournal.org.uk/covid-19s-economic-damage-is-a-problem-for-british-security/> (2020.8.30.)

¹⁹⁾ 국립사이버안보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는 영국 정부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산하에 설립된 해킹 방어 센터이다.

²⁰⁾ E&T editorial staff, "UK government saw 600 cyber attacks in the last year alone", <https://eandt.theiet.org/content/articles/2019/10/uk-government-saw-600-cyber-attacks-in-the-last-year-alone/> (2020.8.30.)



있는 미스트랄급 대형 수륙양용 함을 제공하였고 특히 프랑스 해외 영토에 민간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2020년 4월, 프랑스의 주력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호(Charles de Gaulle)에 탑승한 승무원 중 거의 절반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여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이 상황은 경쟁국들에 의해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시사한다. 샤를 드골호은 올해 지중해와 북대서양에서의 러시아 활동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후속 조치로 선원들의 활동 제한과 해군의 배치 규모의 축소를 검토함에 따라 군사대비태세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2001년 처음 운용을 시작해서 2040년 퇴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샤를 드골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라팔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어 프랑스의 핵 억지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유일한 항모가 철수하게 된다면 이는 프랑스의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안보 상황이 취약한 상황에서 군이 팬데믹 피해를 받으면 외부의 적대행위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독일 :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초기 단계의 지원은 주로 연방조달청을 이용하여 보건 근로자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원에 초점을 두었고 이후 군의 지원 활동이 급증하였다. 의료 관련 경력을 가진 예비역들에게 자원봉사 요청이 증가하였고, 이후 다른 기술을 가진 예비역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국가에서 군에 요청한 것은 민간 의료물자와 장비가 안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제공하고 백신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독일연방군은 위기 극복을 위해 약 15,000명의 군인을 배치하였는데, 민간인 지원을 위한 6,000명,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 및 방호를 위해 5,500명, 그리고 화생방 방어 부대 등으로 2,500명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독일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전에 없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독일의 경제가 2020년 1분기 동안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2.2% 규모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이후 독일의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일의 경기 침체는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국방예산의 감축과 안보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4) 스페인 : 2020년 8월 말 기준, 스페인에서 8만 명 이상이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스페인 정부가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군은 ‘발미스 작전(Operation Balmis)’을 시행하였다. 작전 기간, 군은 2,300개 마을에 총 18만7,000명의 병력이 투입하여 3개월 동안 1만 9,900여 건의 작전을 수행하였고, 평시 기준으로는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한 사례였다. 군은 물자 지원뿐 아니라 전국에 16개의 야전병원을 설립하고 예비역 의사들은 배치하였다.

팬데믹은 스페인군의 해외 임무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부 부대는 철수 또는 임무를 축소 시행하였다. 말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병력이 철수하였는데, 이는 작전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작전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페인군은 이라크에서 IS에 대항



하여 수행하고 있던 연합작전과 나토작전을 모두 중단하였다. 연합군은 IS가 이라크 내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남은 세력이 있고 일부는 행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힘의 공백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5) 시사점

유럽 국가들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제시한다.

첫째,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초기 단계에서 군은 신속하게 가용한 지원능력을 판단하고 시행해야 한다. 영국과 스페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군은 지원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시행하였다. 신속성만큼 중요한 것이 계획의 완전성인데 이는 국가 전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가능한 한 놓치지 않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 가용 작전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과 같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출현 가능한 잠재적인 적에 관해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팬데믹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도 물리적인 군사력 사용, 사이버 공격과 같은 적국의 활동은 계속됐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방비 감축과 같은 악재와 겹치며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적이 아니더라도 자국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좁아진다면 물리적인 피해 못지않은 국가적 피해로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역의 활용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독일군과 미군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공통으로 시행한 조치가 예비군의 동원이었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은 대부분 예비역이 전투병이고 이들의 전문기술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하는 분야이다. 예비역들의 전문성을 군이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유사시 현역 못지않은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편 예비역은 군 병력 충원에도 중요한 자산이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군은 일부 지역에서 입영을 연기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군 병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예비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긴하게 군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향후 팬데믹의 재발을 대비한 예비역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2. 한국군의 피해 및 대응사례, 시사점

한국군은 군 자체적인 내부관리 및 국가 차원의 대응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보다 약 1개월 앞서 여러 전염병 대응 통제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였고 정부와 민간에 대한 많은 지원활동을 하였다. 한국군의 대응사례를 ‘군 자체 대응’과 ‘민간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군 자체 대응

한국군에서는 2020년 2월 20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 이후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0년 8월 말까지 국군 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105명(완치 84명), 치료 중인 환자는 21명이었다.²¹⁾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총누적확진자 수가 17,124명임을 고려할 때²²⁾ 군내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 중 약 0.6%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 5,164만 명의 인구 중 군인이 약 49만 명(0.94%)임을 고려해도 비교적 잘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육군본부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대관리 지침을 하달하였다.²³⁾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육군은 2020년 1월 29일, 코로나19에 대한 첫 대응지침을 하달한 이후 8월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문건을 150회 하달하였다. 월별로 하달된 지침 건수는 2~3월에 40건이 넘어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7월 이후 10건 이내를 유지하였다.

〈표 2〉 2020년 1~8월 간 육군에서 하달한 코로나19 관련 지침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건수	6	44	43	13	15	12	8	9	150

아래의 표3에서 보듯이 하달된 문건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부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이 가장 많이 하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대급 이하 부대가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제대이며 개인의 감염이 부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각종 행정 관련 지침, 일정 조정, 휴가 시행지침, 검사 및 격리 관련 지침 순으로 많은 건수를 보였다. 문건들의 전체적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육군의 조치는 전염병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군의 특성상 임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판단하에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 동아일보,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5명 늘어…누적 확진자 105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30/102705514/1> (2020.8.31.)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31일 0시), 중앙방역대책본부,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9620> (2020.8.31.)

23) 대한민국군의 특성상 육군이 대부분 병사를 관리하므로, 군의 대응은 육군의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 간부를 포함한 각 군의 병력수는 육군이 약 49만 2천 명, 해군(해병대 포함)이 약 6만 8천 명, 공군이 약 6만 5천 명이다. (출처: 2010년 대한민국 국방백서)



〈표 3〉 2020년 1월~8월, 육군에서 하달한 코로나19 관련 문건 현황

문건 제목 (건수)	
부대 운영 및 관리 지침(31)	감염 차단을 위한 간부 준수사항(2)
각종 행정 처리 지침(15)	캠페인 슬로건 활용(2)
각종 일정 조정(선발, 교육, 체력검정)(9)	체력단련장 운영지침(2)
휴가 시행 관련 지침(8)	장병 스트레스 관리방안(2)
검사 및 격리 지침(8)	대유행, 상황 장기화 대비(2)
지자체 제작 대응지침 공유(6)	군대 고위험 시설 방역 및 집중관리(2)
확진자 관리 지침(6)	현장점검 계획(2)
문진표 하달 및 활용(5)	육군 확진자 현황 분석 결과(1)
지침 종합(5)	증상 확인을 위한 '냄새검사' 활용(1)
주요 회의 결과 하달(4)	감염차단 노하우 교육자료(1)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4)	증상 발현 시 개인/부대 조치절차(1)
군 기강 확립 강조(3)	확산 방지를 위한 신고자 포상 안내(1)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	확진자 발생시 상황조치 지침 준수(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마스크 착용(3)	확진자 동향 분석 및 최신 정보(1)
군 확진자 완치 후 관리 방안(3)	내수 경제 살리기(1)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사항(2)	지자체 업무협력관 운용(1)
'우리건강지킴이 앱' 활용(2)	군 내 격리 해제 기준(1)
투표참여 행동수칙 및 투표절차 안내(2)	격리자 폐기물 처리 지침(1)
재택근무자 관련 지침(2)	관사 퇴거유예 탄력적 운영(1)
군인가족 및 민간인 검사 지원(2)	미세먼지 공공2부제 일시중단(1)

군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현장부대를 지원해 병영 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위험 확진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골든타임 내에 통합적 재난지원체계가 작동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신속대응부대 등 전담부대를 지역별로 편성해 장비 및 물자를 즉각 지원하였다. 군은 코로나19 발병 지역에 조기에 배치되어 시민들에게 보호 마스크 및 보호복 착용방법을 교육하고, 공공장소 소독이나 물자 분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군이 집단생활을 하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²⁴⁾ 군은 병영 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합검사법(Pooling test)을 가장 먼저 도입했다.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모아서 검사한 후 양성 나오면 그 그룹만을 대상으로 개별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6시간 정도 걸리는 기존 PCR 검사를 20분으로 단축한 '신속진단키트'도 군에서 개발하였다.²⁵⁾

²⁴⁾ 2020년 7월, 포천의 모 부대에서 발생한 14명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부대의 규모나 사회에서 발생한 감염 규모와 비교할 때 비교적 소규모였으며, 그 외에 군 내 집단감염 사례는 없었다.

²⁵⁾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이 추진 중이다. 2020년 5월 26일, 국방부는 국군의학연구소는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고 민간 진단키트 업체에 기술이



군 병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국군수도병원은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면회객 출입을 제한하였다. 선별진료소와 호흡기감염 외래 진료소도 마련했으며 입원 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 격리병동을 운영하였다. 국군수도병원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였고 국군외상센터에 40개의 격리실을 마련하였다. 국군고양병원은 확진자 급증 시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은 2020년 4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 중단했던 외래진료를 나머지 군 병원들이 분담하였고 장병들의 외진 여건보장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1개 군 병원의 총 69개 과가 토요일까지 확대 진료를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표3에서 보듯, 군은 군인가족, 지역 공동체, 사회를 지원하였고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총체적인 대응에 대한 평가는 우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과할 정도의 대응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황이 장기화에 따라 의료 관련 근무자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 민간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사태 대응 간 군은 민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방신속지원단을 중심으로 방역, 물자, 병력, 수송 등 분야별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 하에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했던 대구·경북 지역 등에 파견된 군 의료인력만 2만 9,000명에 달한다. 마스크 제작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투입된 군 인력은 21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운용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군 자체 PCR 검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격리를 통해 확진자를 관리하였다.

군은 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민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운영하고 군 응급환자 신고 앱 등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 응급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국군수도병원이 파견한 의료인력만 102명이었다. 이들 군의관, 간호장교 등은 인천공항과 지방의 대형병원에 투입되었다. 군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군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방역·치료 현장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워킹 스루 방식의 신속검체채취 기법과 혼합검체분석법 등 신속검사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2개 국군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총 383개의 음압병상을 제공하였고, 147명의 우한 교민을 위해 군 시설인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 생활

전을 완료했고 업체에서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단키트는 신속분자진단법을 적용했는데, 이는 등온 증폭기술(LAMP)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 표준검사법인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보다 검사 시간이 3시간 가량 단축된다.



시설로 지원하였다. 국군대구병원은 하루 최대 100명의 공병 인력을 투입하여 7일 만에 3개 층의 개방형 병실에 격벽을 설치함으로써 303개의 음압병상을 제공하였다.

군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민간 지원을 위한 방역 자산(전문인력, 물자, 장비) 확대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동시에,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던 방역작전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민간 지원에 얼마만큼의 자산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령, 예산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IV.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방향

군의 재난지원 분야는 표(5)에서 처럼 국내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투입한다고 해도 3장에서 코로나19가 군에 가져온 도전요인을 외국군과 한국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는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과 한국군 적용 여부를 보여준다. 4장에서는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방향을 ‘군 자체적 대비가 가능한 분야’와 ‘기관 간 협력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도적 보완이란 시행에 앞서 법령의 개정과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방안이라는 의미이다.

〈표 4〉 외국군 사례의 시사점과 한국군 적용 여부, 관련 기관 및 요소

○ : 적용 가능 / △ : 부분적용 가능

국가	시사점	적용	협력 대상
미국	개인 방역체계 구축	○	-
	전·평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민·관
	임무 우선순위 판단 및 적시적 결심체계 구축	○	-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
	군 활동사항에 대한 대국민 공개 / 소통	○	-
	민·관·군 통합대비태세의 발전	△	민·관
중국	팬데믹 대응 전문부대 편성 및 교육훈련 체계 확충	△	관
	팬데믹 상황 하 안정적인 군수체계 구축	○	민·관
	국방예산 감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관
유럽	초기 단계의 신속대응능력 준비 및 조치	○	-
	코로나19 이후의 출현 가능한 적에 대한 연구	○	-
	예비역의 활용 및 훈련방안 발전	○	관



1. 군 자체적 대비가 가능한 분야

가. 개인 방역체계 구축

개인의 방역 실패는 부대 전체의 감염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평시 집단생활을 하는 한국군은 그 특성상 더욱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군 내에서 다양한 개인 방역 대책이 시행되었는데 전 부대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별하여 채택하거나 보완 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육군 2작전사령부는 휴가 장병을 대상으로 군내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휴가 전·중·후 3중 확인체계를 강도 높게 적용하여 효과를 거두었는데 전군에 적용할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야전부대에서 상급부대에서 하달하는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여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근간에는 개인의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부대 전체가 안전하다는 공통 인식이 깔려있다.

나. 임무 우선순위 판단 및 적시적 결심체계 구축

이번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군은 동시에 요구되는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과 신속한 결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되었다. 팬데믹 대응과 현행작전이라는 두 가지 임무가 요구될 경우 군 지휘부는 임무의 우선순위를 신속히 판단하고 결심함으로써 전투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로, 한·미 양국 군은 전반기 연합훈련을 취소하였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실시하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이라는 중요 목적이 있었지만 코로나19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적이었다.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군은 국가위기 사태 극복을 우선 임무로 판단하고 연합훈련을 취소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처음 겪는 팬데믹이므로 기존의 위기대응 매뉴얼이나 조치사항 목록에 이 같은 대규모 전염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완을 통해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적시적인 결심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군이 대응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하여 향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다. 팬데믹 초기 단계의 신속대응능력 준비 및 조치

우리 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잘 대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감염지역에 대한 신속한 군 병력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규 임용되는 간호사관학교 신입장교들의 군사교육 일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의료인력을 조기 배치하였고,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와 임시생활 시설·생활 치료센터 등에 총 21만 명에 달하는 군 인력을 배치하였다. 3월에는 국방신속지원단을 편성하여 인력·시설·장비 등 가용한 모든 자산을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



축하였다. 이와 같이 군이 성공적으로 대처하였지만 사실 이러한 역량은 기존에 계획되거나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향후 군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신속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라.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전 세계적으로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점점 더 많이 군을 활용하는 추세이며, 여러 서구 국가가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자국의 군사력을 투입하였다. 군이 우선 고려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이며 민간보다 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이 팬데믹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한데 치안 유지 등 법 집행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기에 따라 보건, 의료, 기술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평소에 위기관리능력을 훈련하는 군의 특성상 통제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고 군 의료진과 같은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해 연구 분야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군의 전통적인 임무 범위에 고착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 군 활동사항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소통

현대 사회는 매일 급변하고 있으며,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여과 없이 유통된다. 코로나19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는 별도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전염병의 발생 동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공유 활동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와 통제기관을 신뢰하게 하고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보호하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국방부도 팬데믹 대응과 관련된 군 활동사항을 마스크를 통해 보도해 왔다. 2020년 3월 5일, “우리 군은 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겠습니다!”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총 18건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앞서 본 육군의 문건보다 양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육군이 거대한 조직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했다면 국방부는 군의 활동을 홍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도자료의 내용과 양을 고려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육군의 문건이 전염병 초기 단계였던 2~3월에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3월에 첫 보도자료를 낸 국방부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각 군의 활동 사항 중 장려할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적시에 홍보하고 3개 군을 주도하는 것이 최상위 제대인 국방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바. 코로나19 이후 출현 가능한 적에 대한 연구

현대 사회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대형재난, 사이버공격,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갈수록 국가안보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점점 사이버 기반의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팬데믹이 발생으로 원치 않는 변화를 겪으



며 사이버 및 보안 서비스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 실제로 온라인 회의 중 음란자료나 악성코드가 유포되거나 기밀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²⁶⁾ 군 역시 비대면 방식을 따라갈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이버 보안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군 작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밀정보의 유출,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내부의 적이나 비인가 외부자의 침입에 대한 대응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먼저 언택트 시대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먼저, 사이버 보안을 위해 정부, 군, 민간산업 간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사이버 보안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인데 국내총생산은 한국의 1/5 규모이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 산업은 한국을 능가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정부와 민간산업체가 긴밀하게 협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언택트 시대에 사이버 보안 접근방식에 있어서 개인과 조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경우 화상회의나 원격근무와 같은 그룹 중심의 기능이 일반화될 것이고 개인의 관점에서는 온라인 강의, 비대면 회의 등이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뿐 아니라 법과 규정 등 다양한 연관 요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를 다중화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보안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데이터센터가 공격으로 피해를 보거나 팬데믹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비대면 방식이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서 군은 새로운 위협을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군 인력 및 장비의 불가용성이 심화되고 있다. 서구국가들이 자국군 보호를 위해 파병 규모를 줄이면서 해외 군사 개입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군사강대국들의 국제적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군도 해외 파병부대가 있는데 팬데믹의 장기화로 생길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할 때이다.

2. 기관 간 협력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

가. 팬데믹 상황 하 안정적인 의료 및 군수물자 공급망 구축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일선 의료현장에 있는 전공의들이 방호복과 마스크 부족을 겪었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초기의 의료물자 부족 사태는 정부의 개입으로 시간이 지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팬데믹의 재발에 대비하여 마스크나 개인방호복 등 필수 의료물자의 비축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이 시급하다. 군은 정부의 조치에 발맞춰 전시물자에 의료품목의 양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전염병 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자체적인 보호는 물론 필요시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수

²⁶⁾ Taylor Lorenz, The New York Times, "Zoombombing: When Video Conferences Go Wrong", <https://www.nytimes.com/2020/03/20/style/zoombombing-zoom-trolling.html> (2020.9.8.)



준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이번 사태 간 필수약품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의약품은 다른 소비재와는 다르게 공중 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다. 가능한 해결 방법으로 필수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의 설립이나 특허권 남용 방지 등 여러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군은 그 과정에서 군용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도록 민·관과 적극 소통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편 팬데믹의 장기화는 무기 및 군수물자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 생산물량을 조절하고 다양한 조달 채널을 확보하고 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나. 팬데믹 대응 전문부대 편성 및 교육훈련 체계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군의 민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군이 유사시 전문화된 인력과 물자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부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프랑스의 경우, 민간부문에 재난이 발생 시 대응하는 상설 전담부대(UISC)가 존재한다.²⁷⁾ 이들은 자국 내 활동뿐 아니라, 다른 인접 국가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파견되어 재난 대응, 생존자 수색 등을 실시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군이 팬데믹 대응 전문부대를 창설한다면 먼저 부대의 목적, 역할, 규모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들의 역할은 전염병 발병 초기 단계에서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어 현장 위주로 지원하는 일이며 경과가 진행될수록 민간으로 임무를 이양해야 한다. 이번에 군이 대구 등 일부 지역에 지원병력을 투입했지만, 사전 준비되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용병력을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미래에는 상설 전문부대를 선제적으로 운용하여 전염병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민간인 이동 간 검역이나 국경 치안 유지 등 필요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부대의 편성은 화학, 의무 부대에 민간 지원을 위한 보병부대가 혼합 편성된 합동부대의 형태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기능부대를 조립하는 방식이²⁸⁾ 효율적이다. 합참이 통제하지만 실제적인 컨트롤타워는 의무사령부가 될 것이다. 화생방사령부 특수임무대와 동등한 수준의 장비를

27) 시민안전대응참전군(Unité d'instruction et d'intervention de la sécurité civile) 부대이며 1968년 드골 대통령이 창설한 1500명 규모의 소방 및 구조부대다. 육군 장성이 총사령관을 맡으며 부대원은 모두 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75%가량이 기술공병 출신이다. 이들은 산불, 홍수, 매몰자 구출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면 1시간 안에 약 100명을 재난현장에 투입해 인명구조에 나서고 현장 지휘체계를 만든다. 이들은 제대 후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살려 소방서나 관공서에 배치돼 안전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8) 모듈화는 단위부대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 2보병사단 예하 여단은 2사단 소속이 아닌 3사단 소속 부대도 있다 미군은 한 여단에 각기 다른 사단 소속의 대대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다. 미 육군이 제2차 걸프전쟁을 전후해 도입한 이 같은 모듈화 병력 운용은 전 세계의 공통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본도 2016년부터 이러한 방식을 도입했다.



갖추어 부대원이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과감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 규모는 인구밀집지역을 고려하여 100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인 광역시 또는 도급에 최소 1개 여단급 부대는 되어야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인력 운용상 제한요소 극복을 위해 평시 감소 편성하고 유사시 예비역이 부분 동원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직접 바이러스를 접하는 인력은 관련 특기나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이어야 하고 전투병력은 현장 통제 및 민간인 지원에 관한 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부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대의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의 최전선 부대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사 정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예비역의 활용 및 훈련방안 발전

한국군의 예비역들은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비군지휘관을 비롯한 특전·여성 예비군 등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방역지원, 생활치료센터 생필품 전달 등의 현장에 참가하였다. 다만, 서구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가적 차원의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대부분이고 전투병이 대부분인 예비군의 특성으로 인해 전문인력 풀은 제한적이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예비역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미군의 경우, 각 군은 예비역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민간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고용정보²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예비역들의 직업을 추적할 수 있다. 한국군도 장기적으로는 현역군인이 보유한 능력과 전역한 이후에 사회에서 갖추는 전문성을 추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예비군훈련에도 영향을 끼쳤다. 2020년 예비군훈련은 감염병 단계가 심각하게 격상됨에 따라 2회에 걸쳐 연기되었고 훈련일수도 줄었다. 불가피한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예비군훈련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상 훈련체계가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훈련 장소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다른 위치에 있는 예비군들이 함께 훈련할 수 있다. 실제 한국군은 현재 리얼BX³⁰⁾와 같은 가상훈련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Virtual Battlespace3 프로그램은 여러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장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개인, 승무원, 팀, 소대, 중대 단위로 훈련할 수 있다. 참가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작전환경을 구현한 가상 세계에서 전투를 실시한다. 한국군이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비대면 시대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훈련 방향이다.

²⁹⁾ 미국의 민간고용정보(Civilian Employment Information)에 등록하려면 예비역은 CEI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간 고용주와 직무능력에 관한 10개의 특정 데이터 분야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최신화된 고용 정보의 반영이 늦고 민간기술의 입력방법이 실사용에 맞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기술을 추적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더 제대로 활용하려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가 표준화되어야 하고, 최신 정보 유지를 위해 의회가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³⁰⁾ 리얼BX는 영상 모의사격 훈련 체계로 2012~2015년 미래부와 국방부 공동 범부처 IT 융합과제로 약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됐다. 최대 300명이 한꺼번에 훈련할 수 있는 중대급 훈련 플랫폼이다. 현재 육군 4개 사단 예비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며 총기 발사음과 반동도 구현할 수 있다.



라. 국방예산 감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악의 경우 수십 년 동안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2020년 9월, 한국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 555조 8천억 원 중 국방예산은 52조 9174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 증가율 8.5%에 못 미치는 5.5%를 보였다. 2020년 증가율 7.4%보다도 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국가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국방예산의 감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국방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방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하지 말고 군의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며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국가방위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전부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군이 절충을 시도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기에 재정 현실을 예측하여 삭감과 관련된 선택을 하기 전에 철저한 예측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 민·관·군 통합대비태세의 발전

한국의 경우 국방재난관리훈령에서 재난 발생 시 대민지원과 군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훈령에 따르면 군 재난지원의 기본개념은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민 지원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및 피해 복구’하는 것이며 군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된다. 미국의 연방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인데 국방부장관은 재난관리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또한 각 제대별 재난대책본부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정보공유, 연락관 파견,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에 관해 협력하게 되어있다.³¹⁾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군이 얼마나 긴밀하게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민간을 지원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육군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하달한 문건에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 제작한 대응지침을 공유하는 공문이 6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기관 간에 어떠한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 활동 문건을 보면 감염병 수준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한다. 이중, ‘심각’ 단계(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에서의 국방부의 활동은 군 의료인력 동원 및 시설지원,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수준에 그친다. 이번 대응과정에서 보았다시피 군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에는 기관 간 더욱 통합된 형태로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³¹⁾ 국방 재난관리 훈령[시행 2017. 6. 28.] [국방부훈령 제2046호, 2017. 6. 28., 일부개정]



일부에서는 군이 위기상황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자원 활용 능력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군이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관과 더 소통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예산과 법적 근거 마련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위기는 새로운 무언가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군을 포함한 정부와 민간기관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협력한다면 미래의 보건안보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인류가 처음 겪는 전염병이므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2020년 1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군 관련 사례들로부터 공통적인 취약요인을 찾고 향후 한국군이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도출하였다. 본문에서 다룬 미국, 중국, 유럽 국가의 군이 겪은 피해와 대응사례를 통해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었다. 과연 저러한 사례들이 한국군에게 발생하였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까? 아쉽게도 결론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유는 한국군은 사례들보다 편성이나 능력 면에서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오히려 부족하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전염병의 대유행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시행착오로부터 깨달은 간접 경험과 교훈을 군에 적용할 수 있다면 미래의 팬데믹에 최소한의 피해 혹은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팬데믹 상황에 대한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방향은 크게 ‘군 자체적 대비가 가능한 분야’와 ‘기관 간 협력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군 자체적 대비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① 개인 방역체계 구축, ② 임무 우선순위 판단 및 적시적 결심체계 구축, ③ 팬데믹 초기 단계의 신속대응능력 준비 및 조치, ④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⑤ 군 활동사항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소통, ⑥ 코로나19 이후 출현 가능한 적에 대한 연구’라는 여섯 가지 방안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관 간 협력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① 팬데믹 상황 하 안정적인 의료 및 군수물자 공급망 구축, ② 팬데믹 대응 전문부대 편성 및 교육훈련 체계 확충, ③ 예비역의 활용 및 훈련방안 발전, ④ 국방예산 감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⑤ 민·관·군 통합대비태세의 발전’의 다섯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들이 향후 한국군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 보건안보를 포함한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비된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지금도 이 전염병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 보급될지는 불분명하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인지 아니면 끝나지 않는 팬데믹으로 영원히 인류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본 논문에 제시한 사례와 주장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온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변화의 필요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은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 세계 국가들이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관·군 통합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국가들의 대응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각 국가가 행동에 옮긴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팬데믹이 확산됨에 따라 공통적으로 정부기관과 민간분야, 그리고 군이 협력하여 대응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 표준이 될만한 성공적인 민·관·군 통합의 팬데믹 대응모델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통합대비태세의 발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희진, 2020,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 인류를 위협한 전염병과 최고 권력자들의 질병에 대한 기록』, 미래의창.

제효영, 2020, 『대유행병의 시대 :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 커넥팅.

2. 논문

김명환, 2010, “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특성과 협력 구축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4권 4호, 149-170

이상환, 2020, “감염병의 국제관계: 21세기 국제사회의 보건 갈등과 협력”, JPI정책 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20.2.

Florian Opillard, Angélique Palle, Léa Michelis, 2020, “Discourse and Strategic Use of the Military in France and Europe in the COVID-19 Crisis”, 2020.7.

3. 기타 자료

국방 재난관리 훈령[시행 2017. 6. 28.] [국방부훈령 제2046호, 2017. 6. 28.]

동아일보,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5명 늘어…누적 확진자 105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30/102705514/1>(검색일: 2020.8.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31일 0시), 중앙방역대책본부,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9620>(검색일: 2020.8.31.)

Brad Lendon, CNN, “Coronavirus may be giving Beijing an opening in the South China Sea”, <https://edition.cnn.com/2020/04/07/asia/coronavirus-china-us-military-south-china-sea-intl-hnk/index.html> (검색일: 2020.6.24.)

Canada Communicable Disease Report,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The challenges, “Could exotic mosquito-borne diseases emerge in Canada with climate change?”,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587696/>(검색일: 2020.6.24.)

DOD COVID-19 Cumulative Totals, Coronavirus: DOD Response,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www.defense.gov/explore/spotlight/coronavirus/>(검색일: 2020.8.22.)

E&T editorial staff, “UK government saw 600 cyber attacks in the last year alone”, <https://eandt.theiet.org/content/articles/2019/10/uk-government-saw-600-cyber-atta>



cks-in-the-last-year-alone/(검색일: 2020.8.30.)

Li Bao, Voice of America, "Coronavirus Reveals Weakness in US Military Supply Chain, Officials Say",

<https://www.voanews.com/science-health/coronavirus-outbreak/coronavirus-reveals-weakness-us-military-supply-chain-officials>(검색일: 2020.8.21.)

Taylor Lorenz, The New York Times, "'Zoombombing': When Video Conferences Go Wrong", <https://www.nytimes.com/2020/03/20/style/zoombombing-zoom-trolling.html>(검색일: 2020.9.8.)

"The Event 201 exercise", A Global Pandemic Exercise, <https://www.centerforhealthsecurity.org/event201/about>(검색일: 2020.6.2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68% of the world population projected to live in urban areas by 2050, says UN",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population/>(검색일: 2020.6.24.)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RESPONSE TIMELINE", <https://www.defense.gov/Explore/Spotlight/Coronavirus/DOD-Response-Timeline/>(검색일: 2020.8.27.)

WHO, "Factors that contributed to undetected spread of the Ebola virus and impeded rapid containment", <https://www.who.int/csr/disease/ebola/one-year-report/factors/en/>(검색일: 2020.6.25.)



Abstract

The Need and Direction of Change in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the Pandemic

Yoo, Hyunki
(ROK Army Headquar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change in military preparedness to prepare for pandemics such as COVID-19. This paper begins by recognizing the question 'how does a pandemic affect the military force?' to presents the need for change and draw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direction should be followed for the change in military readiness to prepare for the pandemic?'

The direction of the change in the military preparedness of the Korean military on the Pandemic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ields that can be implemented by the military itself' and 'fields that require inter-agency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irst, six measures are proposed in the area where the military can prepare itself : ① Establishment of a personal quarantine system, ② Establishment of determination of mission priorities and timely decision-making system, ③ Preparation and action with quick response capability in the early stage, ④ Active support for the civilian sector, ⑤ Public disclosure and communication on military activities, and ⑥ Study on the possible enemy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Second, five recommendations are drawn in the field that requires inter-agency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① Establishment of stable medical and military supplies networks under the pandemic, ② Formation of pandemic-specialized units and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③ Development of reserve forces and their training system, ④ Preemptive response to the reduction of the defense budget, and ⑤ Development of the civil-government-military combined preparedness. It is desirable that these measures will be applied practically in the Korean situation and the ROK military will be reborn as a strong army which is prepared for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health security.

Key Word: Pandemic, COVID-19, Health Security,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Infectious Disease